

“이제 분배 문제 고민 할 시점”... 사회적 대타협 제시

새누리당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구역역 김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노조는 이 땅의 청년, 비정규직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정책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라며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북유럽 강소국인 스웨덴, 덴마크 등을 거론, “이들의 역사는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보다 공동체 미래를 위해 더 가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 문제와 관련,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타계한 두 대기업 총수의 부인들이 관리했다. 구실을 넘긴 아버지와 두 아들이(롯데)그룹 경영권을 놓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싸운다”면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을 해체하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들, 딸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대들이 편법 상속, 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엘리트들이 20~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대기업·공공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함께 살 방안 찾아야

“재벌 편법 경영권 세습 막아야”

노동개혁 4법 조속 통과 촉구

재벌이 30대 자녀가 차지한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독과점 규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동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이란 해법 외에 필요한 점을 제시했다. 그는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좌파 진영이 주장하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중향 평준화’를 위해 노동개혁 4법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발 개헌 논의에 대해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 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외에 ▲중국 여선 불법 조업에 대한 무관용 대응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상습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법당국 수사 완료 후 청문회 개최 등을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고 했어요”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왼쪽),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민주, 검찰 개혁 앞세워 대정부 공세 의원 워크숍은 “민생·경제 현안 집중”

민생·민주 투트랙 행보...김종인 “독과점 해소해야 민생 해결”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 결의안과 함께 검찰개혁과 전면

에 내세우면서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4·13 총선 후 최근까지 민생정당을 표방하며 여권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야당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더민주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 20대 국회에서 ‘민생-민주주의’ 투트랙 행보를 예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호준 게이트’ 사건을 “검찰 존엄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검찰이 더는 국민신뢰를 받을 수 없는 비리집단으로 비쳤다”고 맹비난했다.

더민주의 이 같은 대여 강공 포문을 검찰개혁 등을 매개로 야권 공조를 강화해 정국의 주도권을 가

져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더민주는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민생·경제 현안에 집중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횡포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민생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의회가 이 문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교육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에서 각종 제도를 검토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단말기유통법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일몰이 돼서 중지가 되면 원상 복구가 된다고 한다”며 “통신비 절감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민생과 민주주의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고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엄정 처리 재확인

“국민에 걱정 끼쳐 드려 송구”...10일만에 두번째 사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당 당헌 당규에는 검찰 기소 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안 대표는 또 “국민 여러분께 이번 일로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안 대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지난 10일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안 대표가 유감과 함께 단호한 조치를 강조한 것은 진상조사단 활동이 ‘유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을 주도한 것처럼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의 벽에 부딪힌 데 대해 “국회법 개정안에는 청문회 활성화만 담겨있던 것은 아니며 연중 상시 국회 운영안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거부한 국회법을 조속히 재의하도록 국회 의정장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을 선임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86개 지역을 면접 심사해 조강특위 내에서 전원합의가 된 18개 지역을 선정해 최고위에서 인준했다”고 밝혔다.

선정 지역은 서울 6곳, 경기 6곳, 대구 4곳, 경북 2곳이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217곳에서 지역위원장에 응모했으며, 112곳의 인선이 마무리 됐다.

이날 인준된 지역에서는 황인철 조직담당 사무부총장(서울 광진출), 장진영 대변인(서울 동작출) 등 당직자들을 비롯해 표철수(경기 남양주시출), 이송호(부천 원미출), 염오봉(성남 분당갑) 등 지난 4·13 총선 출마자들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조강특위는 이날 말까지 나머지 지역구의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날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15명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온 퇴거 통보
비전조기가 작동되는 정미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비전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이 사일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남편도, 남편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지만,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낡은 낡은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 만사마련으로 사랑이네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갔습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와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막할 뿐입니다.

외부에 임시로 판넬을 덧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가족은 살기 위해, 외성촌에 집 마당에 임시 판넬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넬 집은 집이러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수 뚫어놓은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식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시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하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임당’.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어린이입니다.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를 찍어주세요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